인문학과 문명의 치유

김여수
경희대학교

센텀시티의 기적?

필자의 개인적인 회고로 이 글을 시작해 볼까 한다. 정확히 60년 전, 필자는 한국을 떠나 미국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가게 되었다. 아마도 세계인문학포럼이 열리고 있는 바로 이곳이 그 출발지였던 것 같다. 이 곳 센텀시티는 당시 부산의 서쪽 끝자락으로 수영 공항이 자리하고 있었고, 부산은 남북한은 물론 미국과 소련, 중국, 그리고 유엔 16개국이 참전한 국제전의 소용돌이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던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였다. 수영 공항은 그때 군용 항공 운송의 중심지였는데, 구석진 모퉁이가 민간용으로 할당되어 한반도와 외부 세계를 연결해 주고 있었다.

필자는 48시간에 걸친 비행과 경유지 체류, 심한 멀미를 겪은 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비록 멍한 상태였지만 어렴풋하게나마 이틀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수세식 화장실은 생전 처음 보는 것이었고 영어로 주문해 먹을 수 있는 요리라곤 토마토 수프밖에 없어 하루 세 끼를 모두 이 음식으로 때웠다.

건물들은 상상 이상으로 높고, 거리는 넓고 깨끗한 데다 나무와 자동차로 가득차 있었다. 밝은 색상의 집들은 동화책에나 나올 법하게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사람들은 말끔하게 차려입고 미소를 지으며, 먼 나라에서 와 어리둥절해하는 젊은이에게도 “안녕” 또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주었다. 모든 것이 책에서 보거나 주한 미군들로부터 듣고 경험했던 것보다 더 좋아 보였다. 당시 희미하게나마 이 새로운 세계, 이 새로운 문명은 내가 살아왔던 세계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너무나 달라 결코 나의 세계가 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배워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함께 했다.

부산은 당시 소위 자유세계와 소비에트 블록 간 이데올로기 대립의 최전선에서 발발한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고 있던 남한의 임시 수도였다. 전쟁 발발 당시만 해도 인구 50만에 불과했던 항구 도시 부산은 전국 각지에서 2백만 이상의 피난민이 몰려들어 초만원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군사 중심지로 국군과 유엔군들이 이곳을 거쳐 전투에 배치되고 있었다. 도시는 병원으로 이송되어온 상이군인들과 식량이나 치료도 적절치 못한 제대군인들로 북적거렸다.

당시 부산은 이런 상황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다. 식량 부족과 영양실조가 만연했고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많았다. 집은, 절제된 표현으로 하자면, 거주하기 부적절(inadequate)했다고 하면 맞을 것이다. 판잣집과 진흙 오두막들이 도시 이곳저곳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당연히 위생과 안전, 방화 문제들이 뒤따랐다. 물 부족이 심각해 거리 곳곳에서 오랜 시간 큰 양동이를 든 채 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구걸과 강도, 소매치기가 일어나지 않는 날이 없어 어찌 보면 이것이 도시의 '자연스런' 일상으로 보일 정도였다. 경찰력은 태부족해 이 비참한 도시에서 자신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해로부터 스스로 안전을 지켜내야 했다.

물론 일부는 전쟁의 혼란과 북새통속에서 손쉽게 돈을 벌기도 했다. 당시에는 일본, 홍콩, 마카오 등지에서 생필품들이 많이 밀수입되었다. 장사꾼들 중에는 군수품을 불법으로 거래해 한 몫을 잡기도 했다. 일부 노련한 기업가들은 군수 및 민수용 물품 조달을 통해 전후(戰後) 기업왕국의 발판을 다지기도 했지만, 손쉬운 부의 축적에는 부패의 만연과 퇴폐적인 생활양식이 뒤따랐다. 거리에서 흔하게 창녀들을 볼 수 있었고 카바레와 다방, 은밀한 댄스 홀 따위가 밤거리를 수놓았다. 일부 청소년은 일상의 비참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상실로 허무주의에 깊이 빠져들기도 했고, 비록 제대로 읽은 사람이 거의 없긴 하지만 사르트르와 까뮈가 회자되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초중등학교와 대학들은 임시 캠퍼스를 열었다. 필자가 다니던 학교는 부산 외곽의 채소밭에 군용 텐트를 설치해 임시 교실을 마련했다. 그러다보니 바람이 불면, 채소 비료용으로 뿌린 인분이 섞인 먼지가 의자 밑에서 날려 온 교실을 뒤덮곤 했다. 하지만 이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학교를 다시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더 큰 기쁨이었다. 심지어 빈번한 정전으로 어두운 촛불에 의지해야하는 상황마저도 우리를 주눅 들게 하진 못했다. 청년들은 군대로 징집당했고, 그 중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서구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군대 조직과 운영 시스템과의 만남이었다. 많은 젊은 장교들이 훈련차 미국으로 보내졌고 이들은 완전히 다른 문화와 문명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잔혹한 전쟁이 불완전한 휴전으로 종결된 1953년 당시 한국은 비록 가장 빈곤한 나라는 아닐지라도 그러한 부류에 속해 있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1962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미화 100달러로 오늘날의 최빈국(LDCs)보다 낮았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의 많은 이웃나라들보다도 확실히 떨어졌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던 1953년에서 1960년까지, 정부 수입의 70% 이상은 외국의 원조에서 온 것이었고 그 중 대부분은 미국이 경제협력처(ECA), 유엔한국재건단(UNKRA), 국제협조처(ICA), 그리고 PL480호 등의 채널과 기관을 통해 지원한 것이었다. 이들 영어 약어들은 한국이 가난하고 궁핍했던 이 시절을 겪은 연로한 분들의 귀에는 아마 많이 익을 것이다.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부산은 크게 변모했다. 한국에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세계에서 화물 톤수로 5번째로 붐비는 항구 도시 부산은 360만 명이 사는 현대적인 도시이다. 2002년 아시안게임,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010년 G-20 정상회의와 2011년 핵 정상회담 등을 개최했다. 바로 이곳에서 매년 개최되는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언론의 조명을 받는 영화제로 발돋움했다. 올해 초 한국 인구가 5천만에 이르자 언론은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20K), 인구 5천만 명(50M)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로 정의되는 '20-50 클럽'에 7번째로 가입하게 됐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한국이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 유일하게 이 클럽에 가입하게 된 점 또한 강조했다.

치유에 대한 갈망

센텀시티에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은 확실하다. 60년 전 수영 공항을 떠났던 한 젊은이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세계가 창조되었다. 한국인들은 가난과 경멸이 주는 불행과 고통에서 '치유'되었을까? 센텀시티의 기적은 한국인들에게 행복과 성취감을 가져다주었을까?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회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다. 야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는 몇 주 전 자신은 '힐링'(치유)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내걸었다. 주택, 교육, 안전 및 노인과 청소년 일자리 정책을 다룰 위원회를 만들고 이름을 '힐링정책위원회'로 붙였다.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야당의 힐링캠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 '5천만행복본부'를 발족시켰다. 정치 신인이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춘콘서트와 멘토링으로 전국적 지지를 얻은 제3의 후보도 최근 대통령 입후보를 공식 선언하면서 '힐링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유명인들이 출연해 공개적으로 과거의 삶에서 실수와 불행의 순간을 고백하고 마지막에 마술과 같이 스스로 '치유'되었다고 선언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힐링캠프〉 라는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힐링'으로 넘쳐나고 있다. 힐링 산책, 힐링 음식, 힐링 관광, 힐링 강연, 힐링 댄스, 힐링 승마 클럽, 힐링 숲 리조트 등등 이루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이다. 마케팅 업계는 그동안 주목을 못 받던 제품이나 서비스에 '힐링' 딱지를 붙이고 자연스레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서점은 힐링에 관한 책을 따로 진열하는 특별 코너를 만들었다. 불교 스님의 책이 베스트셀러 상위를 차지하고 이 분의 독자층은 20대에서 50대 이상에 걸쳐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

힐링은 무엇인가를 회복한다는 개념으로 여러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생리학적 측면에서 힐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유기체에 발생한 손상이나 질병을 떠올린다. 이런 관점에서 힐링은 전체적으로 생물체계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분야에서는 숙련된 전문가들이 이 과정을 정밀하게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학적 치료'라는 용어가 더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 한편 심리적 또는 영적인 측면에서 힐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것이 정신과 영혼의 손상이나 고통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힐링'의 어떤 비물리적인 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존재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1] 이러한 생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통해 힐링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며칠간 한적한 곳에서 조용하게 묵상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회수련회나 템플스테이로 몰려간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 문명의 편리함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좀 더 원시적인 형태의 삶을 살기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일상의

1 'Healing'은 http://en.wikipedia.org/wiki/Healing 사이트 참조(접속일 : 2012.9.22.).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고, 묵상을 통해 삶을 위한 새로운 활력과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순수한 본연의 상태를 회복하기를 희망한다.

이상과 같은 힐링에 대한 한국인들의 모습과 사회적 유행으로 보아, 우리가 조금 전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확히 '아니오'로 보인다. 센텀시티의 기적은 행복과 성취감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이러한 결론은 몇 가지 흥미로운 국제적인 통계조사로도 입증된다. 2006년 의료, 재산, 기초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상관요인으로 레스터 대학의 한 분석심리학자가 고안한 주관적 행복(well-being) 지수인 '삶에 대한 만족 지수(Satisfaction with Life Index)' 조사에서 한국은 '20-50 클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102위에 불과했다.[2] 덴마크가 1위를 차지했고, 부탄은 8위, 미국은 23위, 동티모르는 69위, 중국은 82위, 일본이 90위였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기대수명, 교육, 소득에 대한 종합지수인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3]에서도 한국은 조금 나은 순위를 기록했을 뿐이다. 2011년 『인간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8위로, 1위에 오른 노르웨이, 6위 프랑스, 23위 미국과 대비된다.

최근 춘천에서 개최된 제11회 철학실천 국제학술대회 겸 제4회 인문치료 국제학술대회(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hilosophical Practice and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istic Therapy)에서 종합적이고 통찰력있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철학실천을 소개한 철학자 김성진은 한국이 '치유의 나라'[4]가 되어 가는 중이라고 정의내린 바 있다. 그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맞춰 스스로의 삶의 모습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가운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신경증적 증후군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5]

철학실천과 철학카운슬링(Philosophical Counseling)에 대한 담론은 2000년 루 매리노프(Lou Marinoff)의 저서 『철학으로 마음의 병을 치료한다』(*Plato not Prozac*)[6]가 한국어판으로 출간되면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이후 이런 담론은 한국 철학자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었다. 2009년 창립된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는 올해 초 11번째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정도로 성장했다. 철학실천 사상은 강원대학교 학자들에 의해 '인문치료'의 하나로 더욱 확장되었는데, 이 학교 인문과학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정신적·정서적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에 대한 학술회의, 콜로퀴엄 등을 열어 인문치료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 김성진 박사는 철학 카운슬링과 치유에 대한 한국 내 수요가 상당히 높고 철학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한국에서 우리 철학자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말할 정도이다.[7]

---

2 'Satisfaction with Life Index'는 http://en.wikipedia.org/wiki/Satisfaction_with_Life_Index 사이트 참조(접속일 : 2012. 9. 22.).

3 'Human Development Index'는 http://en.wikipedia.org/wiki/Human_Deveopment_Index 사이트 참조(접속일 : 2012. 9. 22.).

4 Sung-Jin Kim, "Philosophical Practice in Korea: A Short History, A New Approach," *Proceedings of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hilosophical Practice and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istic Therapy*, Vol. I, Humanities Institut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 173.

5 위의 책, p. 176.

6 Lou Marinoff, *Plato Not Prozac* (New York, Harper Collins, 1999).

7 Sung-Jin Kim, 위의 책, p. 172.

인문학의 부활?

우리는 오늘날 놀랄만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인문학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현상과 힐링에 대한 사회 전방위적 요구에 얼마나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측정하기란 사실 어려운 일이다. 이런 현상은 일견 놀랍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것이기도 하다. 2002년말 소위 '인문학의 위기'에 대응한 정책연구위원회 설립 결정이 있었고, 인문학 연구를 촉진하고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제안되기도 했다. 필자는 5년간 이 위원회를 이끌었지만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다. 위원회의 성과 역시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 내 인문학의 위기가 단적으로 표출된 계기는 2006년 인문학 교수들의 선언이었다. 전국인문대학장단은 선언문에서 인문학의 생존을 위한 토대가 시장과 효율의 논리에 대한 맹신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인문학의 위기가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가치를 경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시장으로부터 응답이 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논리에서 비롯된 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가 주로 수요와 효율성을 전제로 한 시장에서 왔기에, 이 응답을 고통에 찬 학자들의 비명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는 건 오해일 수 있다. 아무튼 당시 시장은 비즈니스 세계의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와의 한 끼 식사에 대한 대가로 애플의 모든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난 4~5년간 CEO를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 일부 프로그램은 경쟁이 너무 심해 인문학에 대한 진정성을 기준으로 참가자를 선발하는 절차를 만들기도 했다. 일부 수강료는 엄청나게 비싸기도 하지만, CEO의 업무외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회사가 이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CEO들은 몇 주에 걸쳐 저녁시간에 소크라테스와 공자, 마키아벨리와 손자(孫子), 헤르만 헤세와 한영만, 맑스와 법정스님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한다. 기업가들만 이런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권, 정부 부처, 법조인, 대학총장, 의사, 언론인, 교회목사, 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가한다.

일부 기업에서는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내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운영하기도 한다. 한 기업에서는 최근 '인문학과 리더십의 이해'라는 주제로 CEO 전략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주제를 보면 이 회사의 총수가 이 전략회의를 왜 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가이다. 차별화의 기본은 인문학을 통한 인간에 대한 이해에 있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는 것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능력을 창출하는 것, 이 두 가지 과제는 결국 인간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8]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인문학을 대하는 한국사회의 태도가 변화했다는 증거일까? 이러한 인문학적 현상 뒤에 노련한 상업주의의 요소가 숨어 있는 건 확실하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마음속에서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2010년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What is Justice*)의 한국어판이 100만권 이상 팔리고 그의 강연에는 수 천석의 객석이 만원을 이루었다. 올해 초 있었던 슬로베니아의 맑스주의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의 강연에도

8 〈조선일보〉, 2012. 10. 17. B6면.

비슷한 열풍이 불었다. 학생뿐만 아니라 20~30대 젊은 직장인들도 퇴근길에 강연장을 찾았다. 역설적이게도 맑스주의자 지젝의 강연에는 중저가 의류 브랜드 회사의 후원이 있었다. 그밖에 여러 기관과 지자체들이 개설하고 있는 미술, 음악, 고전, 철학과 같은 인문학 강의들도 대부분 지원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교도소와 같은 교화시설 재소자와 노숙자들을 위한 인문학과 철학 코스도 있다. 학문의 상아탑에서 인문학과 철학과 같은 기초 학문에 몰두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미혼모들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탈북자나 다문화가정을 보살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압축 성장과 차용된 문화 통합

이러한 현상들은 어떤 식으로든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것일까?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이 서구 문명을 접할 당시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의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발전은 동시대의 세계에서는 전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오늘날 인문학과 철학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부분적이나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서구에 문호를 개방한지 정확히 136년이 지났다. 1876년 강압적으로 체결된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기반한 한국의 전통적인 사대주의가 종언을 고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6년 뒤인 1882년 한국은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조약 체결과 함께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서양에 직접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은 1883년 영국과 독일, 1884년 러시아, 1886년에는 프랑스와 각각 조약을 맺었다.

19세기 후반 예기치 못한 서구 문명과의 조우와 패배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정체(停滯)와 비효율, 불공정의 원인을 고유의 정치적 · 문화적 전통 탓으로 돌렸다. 물론 대포, 증기선, 철도, 전보와 같은 서양 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동양적인 유교의 윤리 규범을 우월시했던 동도서기(東道西器) 사상을 바탕으로 문명간 갈등을 조정하려 했던 곽기락이나 윤선학 같은 인물도 있었다. 그들은 동양의 도와 서양의 기술이 본래 유래된 지역에서 벗어나 서로 결합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서양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소박하고 너무나 뒤늦은 고전적인 대응방식이었다. 조선왕조의 몰락은 유교적 전통이 가지고 있었던 형식주의, 파벌주의, 그리고 퇴보적인 세계관과 연관되어 있었다. 이후 중국에 대한 굴종만 지닌 채 내재적 가치를 결여하고 있던 한국의 문화적 전통은 식민지적 왜곡을 겪게 된다.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성취에 기반한 '문화적 종합(cultural synthesis)'이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다. 국가의 존엄성과 역사, 미래가 박탈된 상태에서, 우리 고유 전통에 대한 자격지심이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인은 문화적으로 백지 상태가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망과 함께 미국인들이 가져온 정치, 사회, 문화적 사상과 제도에 상당히 수용적이었다. 특히 해방을 안겨준 구세주의 문화이자 한국 전쟁을 통해 맺어진 혈맹국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것들은 한국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 그 영향도 피상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았다. (자체적으로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기성의(ready-made) 문화적 종합이 있었고 그것은 생존과 번영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장해 주었다. 지식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새로운 문화가 제공하는 자원들을 구별할 필요도, 그럴 여유도 없었다. 사회경제적 발전은 서구의 많은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했다. 일반적으로 서양 문화와 동일시되는 미국 문화는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고 여기에는 유행, 집착, 무질서, 일탈이 수반되었다. 물론 유교적 규범과 태도는 오늘날까지도 심층적 차원에서 한국인들의 일상행위를 제어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 이상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규범들은 사실상 해체된 것과 다를 바 없다. 실질적으로 문화의 백지 상태에서 미국의 경제와 정치는 한국인들의 마음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수용되었던 것이다.

미국식 경제와 정치의 수용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행착오와 혹사의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한국에게 기대했던 부와 힘을 가져다주었다. 한국이 반세기 전만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탈산업사회가 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센텀시티의 변모는 진정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변모는 서구, 특히 미국이 지난 150년 동안 수많은 기술 발명과 발전의 체계화를 통해 창조해낸 산업문명의 온전한 복사판이다. 그것은 인간에게 이전에는 결코 영위하지 못했던 수준의 물질적 부를 보장해 주었다. 과학기술의 결실을 제도화하여 얻게 된 생산성의 경이로운 증가 덕분에 인간은 기본적 욕구를 만족시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할 수 있는 물질적 부의 축적을 이루게 되었다.

차용된 문화적 종합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압축 성장 과정에서, 쇠퇴한 문명의 것으로 간주되는 사상과 가치에 대해 인문학적 사고를 던질 필요성이나 여지는 전혀 없었다. 혼란과 위급의 순간에 영감과 가르침을 얻기 위해 우리가 기댈 곳이라고는 빌려온 문화적 종합밖에 없었다. 19세기 후반 서구 문명과의 조우에서의 패배로 수세기동안의 인문학적 성과들이 쓸모없는 종이뭉치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비록 수입물이긴 하지만 인문학의 고전 과목들이 단지 이를 직업으로 하는 소수들만이 관심을 갖는, 값싸고 '쓸모없는' 학문이 되어버린 사실에 놀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물론 한국사와 철학 연구의 부활을 위해 단호한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식민주의는 이를 부질없게 만들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한국인은 비록 전 세계 절반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한 수의 사람들에게 풍요와 민주주의, 정의를 가져다주는 문명 열차에 올라탄 마지막 승객이었을지도 모른다. 1945년 한국인은 미국식 경제, 정치, 문화를 구현하는 문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 문명의 내적 동력과 유효성은 혼란 상태에 있었다. 물론 이 문명의 물질적 · 제도적 측면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으나 인디언 섬머(Indian summer)에 불과했을 수 있다. 그것의 지적 · 도덕적 사상과 가치는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곤 아무도 눈치 채지 못했지만 해체와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었다. 1888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어 서양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된 시절 프리드리히 니체는『권력에의 의지』(*The Will to Power*)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 두 세기의 역사이다. 나는 다가오는 것, 더 이상 달리 오지 않는 것, 즉 니힐리즘의 도래에 관해 쓰고 있다. 이 미래는 수백 가지의 징후들로 말하고 있다. [...]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유럽 문화는 수십 년에 걸쳐 고통스럽게 커져가는 갈등과 함께 재앙을 향해 가게 될 것이다. 끝에 도달하길 원하나 더 이상 비추지 않으며 비추길 두려워하는 강처럼

쉼없이, 거칠게, 황급히.[9]

보에티우스의『철학의 위안』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힐링은 회복의 개념이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힐링이 회복의 개념이라면, 질병, 부상과 이에 따른 고통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정상적이고 순수한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들을 이해하기 위해 또 다른 우회로로 보에티우스의『철학의 위안』[10]으로 가보자. 이 작품은 산문과 시가 결합된 프로시메트릭(prosimetric)이라는 형태로 쓰인 특정 종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5세기 로마의 설교이자 일종의 권고로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이후 영어를 비롯한 서유럽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는데 20세기까지 모든 교양인들에게 필독서로 여겨졌다.

보에티우스는 5세기 후반 로마시대를 지배했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권력과 특권을 가진 로마 기득권층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반역죄로 감옥에 잡혀가게 되었고, 결국 사형선고를 받았다. 재판과 사형을 둘러싼 배경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가『철학의 위안』을 집필한 것은 감옥에 있을 때인 것으로 보인다.

보에티우스는 권력과 명예를 부당하게 잃어버리게 된 자신의 상황에 대해 격렬한 불만을 토로한다. 이때 필로소피아(철학)라는 여인과 뮤즈(muse)의 여신들이 나타나 그를 위로한다. 필로소피아는 그에게 의사와 같은 도움을 준다.[11] 보에티우스의 병을 진단하기 위해 필로소피아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 세상은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가? 세상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12] 보에티우스의 답변이 썩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필로소피아는 그 대답 속에서 치유에 대한 희망을 발견한다. 필로소피아는 이렇게 선언한다. "이제 당신이 앓고 있는 병의 더 깊은 원인을 알아냈는데, 그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 병의 원인과 건강을 회복하는 수단을 온전히 알아냈습니다. [...] 세상의 작동 원리에 대한 진정한 확신은 당신에게 건강을 되찾을 자양분을 제공할 것입니다."[13]

이 죄수와 철학적 견해를 주고받으며, 필로소피아는 인간이 단편적으로 추구하는 불완전한 선(goods)은 단지 완전한 선, 곧 행복을 찾아가는 단계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행복은 신과 함께 있다. 필로소피아는 여기서 인간이 단편적으로 추구하는 불완전한 선은 조화롭게(in unity) 모아져야 한다는 중요한 지적을 한다. 필로소피아는 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9 Friedrich Nietzsche, *The Will to Power* (ed. by Walter Kaufmann), 1967, p. 3. Yersu Kim, "Interaction of Aesthetic and Intellectual Traditions," Academy of Korean Studies and Woodrow Wilson Center, *Reflections on a Century of United States–Korean Relations* (New York and Lond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3), p. 110에서 재인용.

10 Boethius, *The Consolation of Philosophy.* (Transla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P. G. Wals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11 위의 책, p. 8.

12 위의 책, p. 13.

13 위의 책, pp. 16–17.

진정한 의미에서의 완전한 선이 아닙니다. [...] 진정한 선은 그런 목적들이 하나의 형태로 수렴될 때 나타나며, 따라서 충분한 숫자는 권력, 명성, 즐거움과 동의어가 됩니다. 진정 모두가 하나로 일치되지 않는다면, 추구할 만한 가치에 포함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14]

필로소피아는 죄수가 차츰차츰 그의 개인적 고민에서 벗어나, 위안이 지향하는 바가 일상의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한다. 그것은 오히려 신의 지혜, 곧 최고선을 얻고자 노력하는 데에 있다. 그 지혜는 신이 모든 것에 내린 정당한 명령을 실현할 때 생겨난다. "그러므로 신은 모든 것들을 평화롭게 관장하고, 달콤하게 명령을 내리는 최고의 선입니다."[15]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 핵심은 인간이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이런 과정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대신 지상의 노예로서의 족쇄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신에 대한 명상으로 고양시킬 자유를 부여받았다.

문명의 혼돈과 문화 통합

중세 초기 언어로 쓰인 신을 향한 이러한 설교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우리가 앞서 제기했던 질문 — 인문학과 철학이 치유해야하는 고통과 아픔의 본질 — 과 보에티우스의 설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리고 치유를 통해 회복해야 하는 순수성과 진정성이 본래 어떤 상태인지를 개념화하는 데 보에티우스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로마시대의 초기 기독교 언어를 한 겹 벗겨내 보면, 보에티우스는 힐링이 필요한 개인과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가치와 사상의 불일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이성과 통치 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 세계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질문,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문에서 이러한 점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개인들의 정체성 손상으로 이어진다. 필로소피아의 마지막 처방과 보에티우스가 이를 받아들이는 대목은 신을 유일자이자 최고선의 실현으로 본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한 생각은 임의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고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일관된 조화 속에서 사상과 가치를 가진 세계의 질서는 신으로 대변된다. 보에티우스는 인간이 본래 문명의 혼돈(civilizational malaise)으로부터 고통을 받기 때문에 문명의 분석을 통해 치유와 위안을 얻는다는 점을 세속적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시대와 공간에서 문화와 문명은 스스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사상, 가치, 관습들 간의 최적의 종합 상태를 구축한다. 그렇게 이루어진 통합은 어떤 시점에 사상, 가치, 관습들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교환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저항에 부딪히며 변화하는 과정들을 거쳐 성찰적 균형, 즉 최적점을 찾아 내외부인들에게 이를 인식시킨다. 따라서 문화적 종합의 달성은 문명의 기반이 된다.

그러한 종합이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지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상, 가치, 관습을 변화하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적응시켜 나가야 한다. 특정 문명이 자리잡은 자연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게 되면 새로운 종합을 필요로 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제국주의에 의해 절멸되기도 했다. 하나의 문명은

14 위의 책, p. 62.
15 위의 책, p. 67.

발전의 어떤 단계에서는 방향을 잃기도 하고, 아니면 더욱 강력하고 개념적으로 풍부한 다른 새로운 문명을 만나기도 한다. 제국주의로 인해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종속되기도 하지만, 오래된 문명은 자체적으로 부적절함을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종속되는 것만은 아니다.[16]

대전환과 변환의 시대에 문명의 핵심 부분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먼저 역사적, 문화적 대안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이후 문화에 따라 버릴 것은 버리고 받아들일 것은 수용하여 발전시킨다. 프랑스의 중국연구자인 다니엘르 엘리제프(Danielle Eliseef)는 16세기 후반 유럽을 사로잡았던 '유교의 물결'[17]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후안 곤잘레스 드 멘도사가 1585년 『중국왕조사』(*Histoire du Grande Royaume de la Chine*)를 출간했을 때, 이 책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고 유럽의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몽테뉴는 고대 그리스 · 로마 문명을 능가하는, 유럽보다 훨씬 '풍부하고 다양한' 세계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마테오 리치는 유럽에 유교를 소개했다. 중국 문명은 초창기 문화통합의 형성과 진화의 시기에 유럽인들을 열광시켰다. 문명간 상호작용이 만약 다른 일련의 사건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해 나갔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 지에 대해서는 추정만 할 수 있다. '유교의 물결'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문명의 기초가 되는 문화통합의 형성과 그 진화에서 인문학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인문학의 에큐메니즘을 위한 호소 : 인문 과학

부상, 질병, 고통의 본질은 이제 분명해진 것 같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그 치유에 대한 호소는 문명적(civilizational)이다. 서구의 문화적 종합은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인문학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종합의 기둥이 되는 수많은 핵심적 가치와 사상, 제도들과 인문학과의 연관성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며, 때로는 역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문명적이다. 예컨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떠올려 보자. 인간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바꾸려는 파우스트적 의지는 서구의 문화적 종합에서 매우 강력하게 존재해 왔다. 우리는 지금 생태적으로 막다른 길에 서있고 언제 어디서 그 정점에 다다를지 잘 모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엄청난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우리는 '위험사회'와 '피로사회'를 말한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들어섰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과 많은 행동의 결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우리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도처에서 무분별하고 잔인한 살인을 목격하고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그렇게 비인간적이고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는지 알지 못해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우리는 방향을 잃은 채, '상실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필자는 최근의 인문학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는 새로운 문화적 종합에 대한 어설픈 연구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본다. 센텀시티 기적의 바탕이 된 서구의 문화적 종합의 길고도

16 Yersu Kim, "The Idea of Cultural Identity and Problems of Cultural Relativism", Occasional Paper 40, The Woodrow Wilson Center, Washington DC, 1990.

17 Danielle Eliseef, "Les Valeurs Confuceenes: Un Ferment de l'Europe", A Paper presented at a UNESCO conference on "Dialogue Among Civilizations" in Paris, 2003(미출판).

지루한 종언 과정은 특히 한국에서 고통스런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눈부신 발전은 차용해온 정체성과 문화적 종합을 기반으로 이룩한 것이었다. 지난 반세기에 걸친 한국의 발전은 다른 사회에 비해 두세 배나 짧은 시간에 상대적 풍요를 이룬 압축 성장이었다. 이렇게 봤을 때 센텀시티에서 일어난 일들은 신기루가 아닌 진정한 기적이다. 며칠 전 영국의 한 저널리스트가 쓴 서평이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책의 제목은 『한국 : 불가능한 나라』(*Korea: The Impossible Country*)였다.[18] 어째서 불가능한 나라일까? 첫째로 책의 저자가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은 정치경제적 기적을 창조했고, 둘째로 한국인은 거의 달성하기 불가능한 성취 기준을 스스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긴 하지만, 한국의 정치, 경제, 인문학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발전은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어쨌거나 한국에서 두드러져 보이긴 한다. 한국이 방향을 잃고 혼돈에 빠져 있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는 것은 정체성 형성과 창조의 고통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오래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은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성취의 중심이었지만, 이는 500년간 유교적 세계질서에 바탕을 둔 문화적 종합의 창조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참여해왔기에 가능했다. 이후 서구화된 일본과 미국과의 문명전에서 차례로 패한 한국에게 세계는 혼란스러운 곳으로 변했다.

인문학 열풍에는 분명 원인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을 상업주의와 신흥 부호들의 호사스런 기호로 설명할 수도 있다. 희망적인 징후는 기업이 인문학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징후는 부분적으로는 '쓸모없는' 학습에 대한 시장의 압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 인문학의 위기를 야기한 지식의 구조조정이 이러한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 현재 기업의 리더들은 차용한 경영 모델과 기술 모델을 기반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시기는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앞서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창의적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문제는 인간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탁월한 학문인 인문학에 그 열쇠가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낡은 모델을 효과적으로 대체할만한 문화적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 문명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는 어디서나 나타나고 있고, 정치와 경제가 나아가는 방향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단지 새로 단장한 서구의 문화적 종합의 확장인지, 아니면 문명의 진화를 위한 진정한 전환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의 근본을 위협하면서도 이전에 없었던 좋은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다. 2007년 시작된 경제 혼란과 지난해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비극적인 재앙은 스스로가 초래한 결과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오늘날 컴퓨터는 계속해서 발전해 향후 33년 후인 2045년이면 인간의 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컴퓨터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컴퓨터가 획기적으로 발달하게 되면 인간의 마음은 인공지능에게 빠르게 그 자리를 내어줄 것이고, 그 한계 너머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가늠할 수 없을 것이다.[19]

만일 오늘날 인문학이 치유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합한 문화적 종합을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의미를

18 〈중앙선데이〉 2012.9.30.–10.1, p. 12.

19 Lev Grossman, "Singularity," *Time*, 177–7, February 2011, pp. 25–31.

부여하는 지식과 지혜, 자유와 평등이 적절한 역할을 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 방안, 개인 존재의 뿌리인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개념화 방법, 삶의 의미의 궁극적 본질을 찾는 방안, 그리고 최근의 지적 논쟁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많은 물음들에 대한 연구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인문학에 있어 도전과 기회의 시기이다. 근대에 들어 지식이 과학과 인문학으로 분화되고 인문학은 지식의 '작은' 일부분으로 격하되었다고 해서 인문학이 그 자체로 고갈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인문학이 문화적 종합을 적절히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인간과 그의 삶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학문을 아우르는, 더욱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개성기술적(idiographic) 고전적 인문학 연구뿐만 아니라, 법칙정립적(nomothetic) 사회과학 및 유전학, 인공지능, 나노기술과 같은 자연과학까지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인문학은 통섭과 융합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식에 대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보편적인 과학은 페르낭 브로델이 말한 '인문과학(les sciences de l'homme)'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단지 옷감의 바깥 면만이 아닌, 실들이 복잡하게 꿰매고 있는 옷 전체와 같은 마음의 단독 모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20]

이것은 달성하기 '거의 불가능한' 과제일까? 필자는 이것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서 인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20 Fernand Braudel, "Histoire et Sociologie," Fernand Braudel, *Ecrits sur l'Histoire,* (Paris, Flammarion, 1969), pp. 85-86. Immanuel Wallerstein, *The Uncertainties of Knowledg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p. 62에서 재인용.